



# 출산·입양 세액공제,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## <보도내용>

- 2026.6.29. 서울경제 가판은 「최저임금 부부도 다 못받는 출산세액 공제, 현금으로 준다」, 「저소득일수록 출산혜택 덜 받는 ‘역진 구조’ 손질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세금 감면 중심으로 설계된 저출생 정책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... 출산·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,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정비 대상으로 거론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관계부처 입장>

- 정부는 현재 ‘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, 출산·입양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	책임자	과 장	문경호 (044-21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훈 (gogoji92@korea.kr)
	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oro@korea.kr)